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화순군, 추석명절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

### 원산지 표시, 농관원·시군교차점검반 합동단속



화순군은 지난 18일 추석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화순 고인돌시장을 중심으로 농관원 시군교차점검반과 함께 추석명절을 이용하여 급증하는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사례 등을 방지코자

추석명절 제수용 또는 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하여 점검 지도·단속하였다.

단속반은 시장상인들의 진열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표시방법은 적정하지 품목하게 조사하였으며, 단순히 추석명절

품목추가표시를 누락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표시판 부착토록 적극 계도하였다.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신고전화는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남은 추석명절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기간(9월 11일부터 21일까지)동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진통시장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명예감시원 계도활동 강화 언론 홍보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본격 추진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내달 보상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택지개발은 죽림1지구에 4155여 원을 투자해 5776세대, 1만 3864명이 거주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10월 토지, 물건 등 보상실태조사 후 2019년 하반기 사업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준공할 계획이다.

죽림1지구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돼 2009년 9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됐다.

하지만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명품 택지 조성이 기대된다"며 "택지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영암군, 민·관·군 상호 협업강화로 비상대비 철저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영암군은 지난 18일 2018년 3분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실시한 행사는 육군 제8539부대 5대대, 해군3함대, 6전단609전대 관계자 군청

실과소 중무계획 담당자, 읍면 인력동원 및 민방위 업무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안보교육으로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중점관리자원 운영 및 비상대비 교육, 주민신고장 설명, 협조사항과 발전방안 토의 등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가 비상사태 시 소요되는 전시 동원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 동원계획의 실효성 검토와 상호 협업을 통해 비상 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되었으

며, 특히 주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주민신고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중무계획의 실효성 검토 및 업체 임무수행능력 판단, 각종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하여 2019년 중무계획에 반영해 비상대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신고장 정비 및 관리를 통하여 군민들의 신고정신을 생활화 함으로 각종 재난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담양군,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청년 근로자 모집

### 지역사회 필요한 서비스 제공·청년의 직무경험 기회 마련

담양군이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를 위한 청년 근로자 16명을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의 일지리와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에

게 공공분야 직무경험을 제공, 향후 취업의 미중발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 희망자는 담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에 게시돼

있는 관련서류를 작성해 담양군청 풀뿌리경제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풀뿌리공동체 마을여행 사업단 등 7개 사업에서 일하게 될 청년근로자는 10월 중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을 거쳐 선발 후 사업장에 배치돼 1년간 근무하게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추석맞이 군·경 위문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는 18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각종 임무수행과 치안 질서 확립을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군 장병

과 소방대원 등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 행사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전동평 영암군수 조정기 군의회 의장, 나임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김종환 제향군의회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해군3함대 사령부 방문을 시작으로 영암소

방서, 육군 8539부대 왕인대대, 영암 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군 장병과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훈훈

한 정을 나눴다.

전동평 군수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향토방위와 지역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생이 있기에 영암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영암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만흥~덕양' 여수 전라선 옛 기차길 1단계 전 구간 개방

### 둔덕~덕양 8.4km 개통식...만흥~둔덕 7.7km는 1월 개방



여수 만흥동에서 소라 덕양까지 전라선 옛 기차길 공원 1단계 구간 16.1km가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19일 오전 선원 금호아파트 아래 옛 철도부지에서 전라선 옛 철길공원 1단계 2차분 개

통식이 열렸다.

2차분 개통에 따라 시민들은 총 16.1km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만흥·오립터널·미평·원화동·선원

뜨레·양지바름 등 6개 공원을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전라선 옛 기차길 공원 조성사업은 노선변경으로 폐선이 된 옛 기차길을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만흥동에서 읍촌면까지 21.4km이며 사업비는 607억 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2단계 사업은 소라 덕양에서 읍촌까지 5.3km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은 개방 후 시민 휴식공간으로 호응을 얻으며 여수의 명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개통 구간은 민과 관, 산이 함께 만들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햇빛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